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와 교사의 다중평정을 통하여

정 계 숙¹⁾

노 진 형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가 다중평정한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의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의 33개 학급의 담임교사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의산만하고 과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만4-5세 유아의 어머니 119명이었다. 교사와 어머니가 평정한 단축형 코너스 평정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고 15점을 기준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을 상하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비애정적, 비일관적, 거부적,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비일관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비애정적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아동특성에 의한 양육스트레스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애정적 양육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부모교육 및 다중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다중평정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BK21 계약교수 (E-mail: michiaa@hanmail.net)

I. 서 론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역학 조사 및 관련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높은 발생율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학령기 아동의 4.12%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며(Scahill & Schwab-Stone, 2000), 우리나라는 학령기 아동의 약 2.5%, 소아정신과 의뢰환자의 8.7% 이상의 높은 유병율(김봉년, 서해숙, 손정우, 신성웅, 이수인, 박동기, 2007)을 보인다는 보고 및 2005년도 역학조사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중에는 한 반의 약 15%정도가 이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김형숙, 2007)가 있다. 이처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학령기의 장애로 인식될 만큼 많은 연구들이 학령기 아동에 치중되었다.

최근 일찍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유아들의 경우에도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매우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져 과제를 적절하게 완성하지 못하는 행동이 흔하게 나타난다. 6세가 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60%가 발견될 만큼(Barkley, 1998) 행동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 우리나라 유아들의 출현율이 5.7%(박명화, 2001)에서 2.5%(백운선, 2005)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발달적 특징과 혼동되거나, 또한 비형식적이며 놀이중심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들이 과잉진단 혹은 미진단되고 있는 실정이다(Sayal, Goodman, & Ford, 2006).

그 결과,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현장에서의 필요한 대처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은 나이 또는 발달단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의집중능력 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시간준수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합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다(이옥형, 신현오, 2001; Barkley, 1998). 또한 또래와의 관계 및 사회적 발달문제(Kendall, Leo, Perrin, & Hatton, 2005) 또는 학업에서의 문제(Brim & Whitaker, 2000) 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기인한 다른 발달과 학업문제 등이 제기된다. 따라서 아직 진단되지 않았지만 주의산만하거나 과활동적인 유아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행동적, 발달적, 학업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은 학교환경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서도 부정적인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shaw, Owens, Wells, Kraemer, Abikoff, Arnold, Conners, & Elliott et al., 2000). 어머니를 힘들게 하거나 산만한 정도와 같은 자녀의 특성은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다(Mash & Johnson, 1983). 자녀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경우 2-3세경부터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시작된다(Werner, 1994). 아동기에 들면 더욱 분명해지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학습장애를 동반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부모는 자

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으며(김형숙, 2007; 오원옥, 2008; 최윤영,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 김지혜, 2002) 부모로서의 만족감이 낮고(Poloski & Nigg, 2001)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다고 한다(안연옥,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녀의 산만하고 과활동적인 특성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행동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신숙재, 1997). 따라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일반자녀를 둔 부모보다 명령과 지시를 더 자주 사용하며(Barkley, 1998) 더 많은 통제를 하는 등, 덜 효과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오원옥, 박은숙, 2007; Cunningham & Boyle, 2002; Modesto-Lowe, Danforth, & Brooks, 2008).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 행동의 심각성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Anastopoulos, Grevemont, Shelton과 Dupaul(1992)이 지적한 것처럼 어머니가 평가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송윤조, 2005), 바람직한 양육행동수준이 낮았다(이미아, 2009). 아동의 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이신영, 1998)에서는 과잉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다. 교사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구강민, 2008)에서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이 심각할수록 어머니의 온정적·격려적 양육행동이 낮았고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이었다. 따라서 자녀가 보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심각성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별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상은 부모교육의 개별화(Kcyser, 2006)가 주장되는 시점에서 자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부모교육의 개별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진단에 대해 DSM-IV(APA, 1994)에서는 여러 장면에서 다수의 관찰자가 6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동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들의 경우에 관찰자는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대표적이다. 우선 부모는 아동행동 평가 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부모의 평정은 치료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데도 핵심이 된다(송수미, 김재환, 2002). 그러나 부모는 3-6세의 유아기에 보이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행동 특성을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모습으로 보거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박현숙, 2000)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가정 내 자녀의 행동증상에 대한 문제 지각이 쉽지 않으며, 교사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관대한(Bussing, Gary, & Leon, 2002) 면도 있다. 반면, 교사의 경우는 어머니에 비해 다양한 유아 행동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찰기회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교사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은 낮으며 이로 인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박명화, 2001; 황순영, 2008)는 주장도 있다. 또한 어머니와 교사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연구(정계숙, 구강민, 2009)에 따르면 교사는 어머니보다 유아의 행동 특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오경자, 이해련(1989)에 의하면 부모와 교사의 평정 일치도는 .36-.37정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장애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교육적 대응을 위해 교사와 어머니의 평가 결과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아동 및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연구(구강민, 2008; 송윤조, 2005; 유연주, 조윤경, 2008; 이신영, 1998)에서는 교사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평가 결과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다양한 평가자가 요구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평가지침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양육 당사자로서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행동적 부담을 직접 경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지 않아 이러한 문제로 자녀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산만하고 과활동적인 특성에 대해 갖는 인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 행동적 현상을 유발하거나 그것을 결과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인식이나 신념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특히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의 측정에 있어 내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그러한 행동 특징을 보이는 유아기 자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두 변인 간의 관계의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에 대한 교사 평가 뿐 아니라 어머니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진단에 대한 DSM-IV의 지침을 수용하여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고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변인 측정의 내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대한 다중 평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모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모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모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22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임의 추출된 33개 학급에 재학 중인 만 4, 5세 유아와 그 어머니 119명이었다. 유아들은 담임교사들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의산만하고 과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로 학급당 3-4명씩 선정되었다. 전체 119명 중에서 남아가 97명, 여아가 22명으로 남아가 4배 이상 많았으며, 만 4세

52명, 만 5세 67명으로 만 5세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별 대상수를 보면 30-40세 사이가 97명으로 전체의 81.5%가 3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6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2.1%였고, 고졸이 53명으로 전체의 약 44.4%를 차지하였다. 취업한 경우는 52명, 비취업이 67명으로 각각 전체의 43.7%, 56.3%로 비취업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Abbreviated Conner's Rating Scale: ACRS)

단축형 코너스 평정척도는 Conners(1969)가 개발한 평가척도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을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는 행동평가척도로 (Conners, 1969)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 이해련 (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17세 연령 범위의 유아·청소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 교사와 부모가 모두 평정할 수 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주요 증상이 되는 행동적 특징에 대한 문항에 전혀 없음 0점, 약간 1점, 상당히 2점, 아주 심함 3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30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어머니가 .80, 교사가 .87이었다. 기준점은 15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총빈도 (%)
연령	20-30세	5	4.2
	30-40세	97	81.5
	40세이상	17	14.3
학력	중졸	2	1.7
	고졸	53	44.4
	대졸	62	52.1
	대학원졸	1	0.8
	무응답	1	0.8
취업	취업	52	43.7
여부	비취업	67	56.3

스 척도는 백설아(2005)가 사용한 것으로, 이 척도는 Abidin(1990a)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배인숙(1993), 이한우(2002)가 재구성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는 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와 같은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12 문항씩 총 2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아동특성요인은 Cronbach α 가 .78, 부모특성은 .87이며 전체 척도는 .89의 신뢰도를 보였다.

양육행동 척도

양육행동척도는 류현강(2007)이 사용한 것으로, 이는 Block(1984)의 양육행동척도(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검사 및 유우영(1998)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는 애정, 거부, 과보호, 일관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일관성에 대한 것은 역산 문항으로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애정 또는 일관성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거부나 과보호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과보호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문항 구성은 거부는 8문항이며, 나머지 요인들은 각각 7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애정요인은 Cronbach α 가

.75, 거부 .79, 과보호 .82이며 일관성은 .75였다.

3. 연구절차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는 교사나 어머니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였다. 따라서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위해 먼저 22개 유아교육기관의 만, 4, 5세반 담임교사 33명에게 산만/과활동적인 유아를 학급당 3-4명씩 선정하게 하였다. 선정된 유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유아의 어머니들에게는 단축형 코너스 평가 척도,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검사를 유아를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담임교사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아를 보다 정확히 선별하기 위해 모두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로 선정하였고 학급에서 유아들의 생활과 행동을 6개월 이상 충분히 관찰한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모와 교사가 평정한 점수의 범위는 각각 1~20점(M: 10.37, SD: 4.61) 및 2~26점(M: 13.49, SD: 5.67) 사이였으며, 두 점수 간에는 .55의 상관이 있었다. 오경자, 이혜련(1989)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부모의 기준점으로 17점과 16점이 타당하

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단축형 코너스 척도의 기준점으로 15점이 사용되어왔고(Trite, Dugas, & Lynch, 1979) 유아 대상의 한 연구(장은경, 2006)에서는 기준점을 12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15점을 기준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 교사의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내고 15점을 기준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M=16.64$, $SD=1.85$)과 낮은 집단($M=9.13$, $SD=3.17$)으로 나누었다. 연구문제 1과 2에 대해서는 각 수준별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하위요인별 집단간 차이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3에 대해서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별로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는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총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30$, $p<.001$). 하위 요인별로도 아동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t=6.12$, $p<.001$)와 부모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t=5.2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낮은 어머니 보다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별로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

표 2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점수의 t검증

양육스트레스	상집단($n=44$)	하집단($n=75$)	t
	M(SD)	M(SD)	
아동특성	2.49(0.42)	2.02(0.38)	6.12***
부모특성	2.56(0.49)	2.08(0.48)	5.20***
전 체	2.53(0.40)	2.06(0.39)	6.30***

p<.001

표 3.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행동 점수의 t 검증

구 분	상집단(n=44)	하집단(n=75)	t
	M(SD)	M(SD)	
애정	3.51(0.45)	3.57(0.55)	-2.37*
거부	3.14(0.55)	2.59(0.48)	5.71***
과보호	2.68(0.80)	2.22(0.53)	3.76***
일관성	3.05(0.47)	3.48(0.50)	-4.50***

* p<.05, *** p<.001

의 어머니는 낮은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애정적 양육요인(M: 3.51, 3.75)과 일관성 요인(M: 3.05, 3.48)에서 각각 5% 및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t=-2.37$, $p<.05$, $t=-4.50$, $p<.001$). 반면 거부 요인(M: 3.14, 2.59)과 과보호 요인(M: 2.68, 2.22)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각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71$, $p<.001$, $t=3.76$, $p<.001$).

따라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가 낮은 유아의 어머니 보다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며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더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두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전체 유아의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의 크기는 .22~.56사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가장 큰 상관($r=.48 \sim r=.56$, $p<.001$)이 있는 것

표 4.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별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상집단(n=44)			하집단(n=75)			전체집단(n=119)		
	양육 스트레스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전체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전체
양육행동									
애정		-.20	-.32*	-.30*	-.43***	-.38**	-.45***	-.40***	-.41***
거부		.35*	.47**	.47**	.31**	.39**	.39**	.48***	.54***
과보호		.17	.09	.14	.16	.09	.13	.30**	.22*
일관성		-.45**	-.45**	-.51***	-.30**	-.40***	-.40***	-.48***	-.52***
									-.54***

* p<.05, ** p<.01, *** p<.001

으로 나타났고, 일관적 양육행동과의 상관($r=-.48 \sim r=-.54$, $p<.001$) 및 애정적 양육행동과의 상관($r=-.40 \sim r=-.45$, $p<.001$)이 다음으로 크며 과보호와의 상관($r=.22 \sim r=.30$, $p<.01$)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 비일관적, 비애정적,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전체적으로 $-.51 \sim .47$ 사이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일관성 요인에서 $-.51 \sim -.45$ ($p<.001$)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거부 요인과는 $.35 \sim .47$ ($p<.01$)의 정적 상관을, 애정 요인과는 $-.32 \sim -.20$ ($p<.05$)의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아동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는 애정적 양육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과보호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낮은 유아의 모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하위요인은 양육행동 요인과 $-.45 \sim .39$ 사이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애정적 요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8 \sim r=-.45$, $p<.001$) 다음으로 일관성($r=-.30 \sim r=-.40$, $p<.001$)과 거부($r=.31 \sim r=.39$, $p<.01$)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과보호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두 집단에 있어서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비일관적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는 비애정적 양육행동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아동특성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와 애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대조가 된다. 양육스트레스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전체 유아들에게서는 유의하였으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면 두 집단 모두 그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과 모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 집단은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 평정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구하고 15점을 기준으로 상, 하집단으로 나누었으므로 상집단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된 유아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 즉, 어머니와 교사에게 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기준점 이상으로 선별된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아동을 포함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정도가 다른 세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자녀의 과잉행동문제가 심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구강민(2008),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2003), 이신영(1998)과 비슷한 결과이다.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증상의 심각성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의미 있는 변인(Anastopoulos, Grevemont, Shelton, & Dupaul, 1992)이 된다는 주장은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함께 반영하여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수준을 구분한 경우에도 재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징후를 보이는 아동은 증상의 발현 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간격이 있다(Escobar, Soutullo, Hervas, Gastaminza, Polavieja, Gilaberte, 2005). 따라서 주의산만하고 과활동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오랫동안 만성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장애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이들 부모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모교육 및 유아발달을 돕는 중재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된 유아의 어머니는 그 특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일관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더 적게 보이는 반면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령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령과 지시를 자주 사용하며 보다 통제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최윤영 등, 2002) 보다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이미아,

2009)과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공희자, 문재우, 2004)를 보였다. 유아교사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부적, 비일관적 양육행동의 특징이 있다(구강민, 2008)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되거나 진단된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적 양육의 아동 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 친밀한 상호작용이 어렵고(French & Waas, 1985), 또래 집단에서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며(Rubin, Lemare & Lollis, 1990) 또래부적응을 보이는(김귀연, 김경연, 2005)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들 부모에게 실질적인 양육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기준점 이상이거나 이하인 유아의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일관적, 거부적, 비애정적인 양육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기준점 이상인 경우 양육행동 요인 중 비일관적인 양육행동과, 그리고 기준점 이하인 경우는 비애정적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구강민, 2008; 이신영, 1998)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행동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아동 특성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으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즉, 기준점

이하인 유아들은 일반 유아들이므로 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아의 특성에 의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비애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 반면 기준점 이상의 높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되는 수준이지만 유아기의 특성으로 인해 아직 아동기만큼 문제 행동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유아에 따라 어머니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유아의 행동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는 어머니 자신의 유아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점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점수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선행연구들은 변인 측정의 내적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시도가 적절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과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유아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의 개별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이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구강민, 2008)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체 유아집단에서는 두 변인 간에 정적 관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더 큰 유아 표집

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일차적으로 주의산만하고 과활동적으로 지각한 유아를 선정한 후 코너스 평정척도를 어머니와 교사에게 모두 실시하고 두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을 나누었다. 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에 대한 평가자로서 어머니와 교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DSM-IV (APA, 1994)의 평가기준에 보다 부합하고자 한 시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교사 간 평정일치도가 오경자, 이해련(1989)에 비해 더 높은 .55이었다. 또한 연구대상 선정과정에서 교사가 평소에 주의산만하고 과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했던 유아들의 약 37%정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선별되는 경우였고 나머지 약 31%는 10점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은 어머니와 같은 주요 인물을 교사와 함께 평가에 참여시켜 교사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다중 평가가 필요함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아는 선별, 진단 여부를 떠나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문제의 개선 뿐 아니라 유아의 행동 문제의 개선에는 특히 어머니가 포함되어야 하며(이영분, 2000; 이옥형, 신현오, 2001) 가족의 부적절한 상호작용과 이해 부족이 아동의 행동문

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들(Johnson & Mash, 2001; Johnson & Ohan, 2005)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교육과 더불어 Kendall, Leo, Perrin, Hatton(2005)이 지적한 것처럼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라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Abidin, 1990b)를 낮추기 위한 중재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 장애로 선별되는 수준의 유아의 어머니는 기준점 이하인 일반 유아의 어머니 보다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비일관적, 비애정적,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두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배경변인(예; 사회적 계층)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한 제한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기 전이지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아를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학령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부모교육 및 다중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공희자, 문재우 (2004). 주의력결핍 및 과잉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2(1), 297-317.
- 구강민 (2008).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 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봉년, 서해숙, 손정우, 신성웅, 이수인, 박동기 (2007). 산만한 우리아이 어떻게 가르칠까? 서울: 샘터.
- 김형숙(2007). ADHD 가족·사회 성장모형. 기독교상담학회지, 14, 63-93.
- 류현강 (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질과 부적응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화(2001). 유아교육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유아의 행동문제와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4), 437- 454.
- 박성연, 이 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현숙 (2000).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중재 효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연구, 35(1), 167-200.
- 배인숙 (1993). 자폐아동의 적응 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설아 (2005).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윤선 (2005).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유아의 실태 및 교사·부모 간의 평가 경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 송수미, 김재환 (2002). ADHD 및 우울/불안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간 평정일치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59-869.
- 송윤조 (200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및 가족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연옥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1989).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증 평가도구로서의 단축형 Conners 평가 척도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135-142.
- 오원옥 (2008).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가족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4(4), 396-404.
- 오원옥, 박은숙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부모의 양육경험: 정상에다가가기. 대한간호학회지, 37(1), 91-142.
- 유연주, 조윤경 (2008).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실태조사: 교사행동 평정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169-190.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아 (2009). ADHD를 가진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특성 및 자녀특성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1(2), 95-111.
- 이신영(1998).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특성-고과잉행동, 저과잉행동아동, 정상아동의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2000).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체계론적 치료접근방법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6, 129-157.
- 이옥형, 신현오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37, 193-218.
- 이한우 (1998).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 (2006). ADHD 선별에서 유아용 K-CBCL의 유용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영,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 김지혜 (20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태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153-162.

- Abidin, R. R.(1990a).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_____ (1990b).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 C.: Author.
- Anastopoulos, A. D., Grevemont, D. C., Shelton, T., L., Dupaul G. T. (1992).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5), 503-520.
- Barkley, R. A. (1998).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clinical workbook* (2nd ed.). NY: Guilford Press.
- Brim, S. A., & Whitaker, D. P. (2000). Motivation and student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eventing School Failure*, 44(2), 57-60.
- Bussing, R., Gray, F. A., & Leon, C. E., (2002). General classroom teachers' information and perception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ral Disorders*, 27, 327-339.
- Cunningham, C., & Boyle, M. H. (2002). Preschoolers at risk for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Family, parenting, and 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55-569.
- Escobar, R., Soutullo, C. A., Hervas, A., Gastaminza, X., Polavieja, P., & Gilaberte, I. (2005). Worse quality of life for children with newly diagnose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ompared with asthmatic and healthy children. *Pediatrics*, 116(3), 364- 369.
- French, D. C., & Waas, G. A. (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 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age children: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258.
- Hinshaw, S. P., Owens, E. B., Wells, K. C., Kraemer, J. C., Abikoff, H. B., Arnold, L. E., Conners, C. K., Elliott, G., Greenhill, L. L., Hechtman, L., Hoza, B., Jeasen, P. s., March, J. S., Newcorn, J. H., Pelham, W. E., Swanson, J. M., Vitiello, B., & Wigal, T. (2000). Family processes and treatment outcome in the MTA: negative/ineffective parenting practices in relation to multimodal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555-568.
- Johnson, C., & Mash, E. J. (2001).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3), 183-208.
- Johnson, C., & Ohan, J. L. (2005). The importance of parental attribution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3), 167-182.
- Kendall, J., Leo, M. C., Perrin, N., & Hatton, D. (2005). Modeling ADHD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7(4), 500-518.

- Keyser, J. (2006). *From parent to partners: Building a family- centered early childhood program*. St. Paul, MN: Redleaf Press.
 - Mash, E. J., Johnson, C. (1983).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Modesto-Lowe, V., Danforth, J. S., & Brooks, D. (2008). ADHD: Does parenting style matter? *Clinical Pediatrics*, 47(9), 865-872.
 - Poloski, C., & Nigg, J. T. (2001). Parent stress and coping in relation to child ADHD severity and associated chil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503-513.
 - Rubin, K. H., Le 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yal, K., Goodman, E., & Ford, R. (2006). Barriers to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ical Psychiatry*, 47(7), 744-750.
 - Scahill, L., & Schwab-Stone, M. (2000). Epidemiology of ADHD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Clinical in American*, 9(3), 541-555.
 - Shaffer, D., & Greenhill, L. L. (1979). A critical note on predictive validity of "the hyperkinetic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61-72.
 - Trite, R., Dugas, E., & Lynch, G. (1979). Prevalence of hyperactivity. *Journal Pediatric Psychology*, 4, 179-188.
 - Wernar, C. (1994). 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외 10인 역(1998). *발달정신병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 차원고접수 : 2010. 01. 07.
수정원고접수 : 2010. 03. 03.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8.

The Levels of Inattentiveness/hyperactivity of Young Children as a Function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s: Using Mother and Teacher Rating Scores

Chung, Kai Sook

Roh, Jin Hy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level of inattentiveness/hyperactivity of young children as rated by mothers and teachers as a function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119 mothers and their inattentive/hyperactive, but undiagnosed young children aged 4-5. The mothers and teachers rated children's inattentiveness/hyperactivity using Conners's Rating Scale and the mean of the scores was used to divide the children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a cut-off score. The results were that mothers with more inattentive/hyperactive children showed higher parenting stress and more rejective, inconsistent, overprotective and non-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There were also differing characteristic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among the two groups. For mothers with inattentive/hyperactive children above the cut-off point, parenting stress had the biggest correlation with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s, but with non-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for the counter mothers.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caused by children's problems and non-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appeared only in the case of mothers of children below the cut-off point. The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and multiple ratings for young children's inattentiveness /hyperactivit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Level of inattentiveness/hyperactivity,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multiple rating